

문화텍스트를 통한 충칭 도시문화 연구

- 《失蹤的上清寺》와 <好奇害死貓>를 중심으로 -

朴 貞 姬*

<目 次>

- | | |
|--|---|
| I. 들어가면서 | III. 문화텍스트로 본 충칭문화의
현실과 갈등: 영화 <好奇害
死貓>를 중심으로 |
| II. 기억 공간으로서의 도시: 소설
《失蹤的上清寺》를 중심으로 | I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급속한 도시화는 20세기 중국 최대의 공간사회운동이다. 특히 충칭(重慶)은 20세기 말에 직할시가 된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룬 중국의 신흥대 도시, 전환기 사회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다.

충칭은 중국 서부 내륙도시 중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이지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과는 달리 이제 막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도시이다. 따라서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는 충칭은 보편적인 도시문화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특색 또한 구비하고 있기에, 도시화를 한창 진행하는 중국 도시에서의 삶의 양상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충칭 도시 문화는 최근 중국의 도시화와 그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엔 지역특색과 독특한 역사문화로 인해 수많은 이름표가 붙어

*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객원연구원

있다. 자연특색을 드러내는 ‘산성(山城)’, ‘강성(江城)’, ‘화로(火爐)’, 역사문화도시의 면모를 강조하는 ‘항전시기의 임시수도(抗戰陪都)’, 신중국 계획경제체제하의 공업화 모델을 대표하는 ‘구공업기지(老工業基地)’ 및 전환시기의 ‘구공업기지 개조(舊工業基地改造)’, 직할시 승격 이후의 ‘산사대이민(三峽大移民)’, 그리고 최근에 붙여진 ‘신홍대도시’라는 명칭이 대표적이다.

충칭모델을 긍정하고 그 전개에 깊이 관계한 추이즈위안(崔之元)¹⁾은 “선전(深圳)이 중국의 1980년대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상하이(上海)가 1990년대의 상징이라면, 충칭은 21세기 첫 10년 동안 중국이 발전해온 추세를 잘 보여준다”²⁾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버드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교수의 2008년 충칭에 대한 서술을 인용한다. 퍼거슨은 충칭 방문을 통해 중국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충칭보다 더 잘 보여주는 곳은 없다. 양쯔강 상류에 위치한 충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다.”³⁾

충칭 경제성장의 특징은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거의 동시에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도시화는 오늘날 중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 프로젝트

-
- 1) 추이즈위안(崔之元)은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김진공 옮김, 돌베개, 2014)에서 공유제와 시장경제가 합치된 체제가 가능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체제를 꿈꾸었던 이론가들에 대해서 논한다. 추이즈위안이 이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공공성의 실현을 통한 평등의 추구라는 대전제 하에서도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이 시장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원리가 다름 아닌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임을 주창하기 위함이다. 그는, 중국 사회주의가 개혁개방 이후 추진해왔던 다양한 제도개혁들을 ‘자본주의로의 수렴’이 아니라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는 개혁개방이 심화된 오늘날 중국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충칭모델(重慶模式)’을 내세운다. 추이즈위안은 충칭시의 요청으로 충칭시의 정책 자문역을 역임하기도 했다.
 - 2) 추이즈위안, 김진공 옮김,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 돌베개, 2014, 125쪽.
 - 3) 같은 책, 126쪽.

트”⁴⁾로 중국의 지형과 중국인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급속한 도시화로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이 도시 충칭의 현재 상황이다. 충칭은 현대적인 마천루와 전통적인 고상가옥(吊脚樓)의 건축군이 어우러진 도시로 직할시이면서도 파유(巴渝) 수천 년의 농업문명이 계속되고 있는 농촌도시이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충칭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농촌과 도시가 병존하기에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응축된 곳이기도 하다.

도시의 물리공간과 사회공간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뒤섞이고 뒤죽박죽인 다원적 특징을 가진 ‘충칭’이라는 도시는 영화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충칭이 지닌 영화적 성격은 재현의 방식이 아니라 이같은 가시적·비가시적인 도시의 특수성에 의한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에 힘입어 들어선 새로운 건축물들은 기존 건축물의 전면적인 철거가 아니라 기존 건축물과의 중층적인 방식의 공존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야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복잡한 현실과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허구적 텍스트 생산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충칭의 다원화된 도시 경관은 영화 촬영에 더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풍부한 서사경관을 구성”⁵⁾해냈다. 그래서 21세기 이후 충칭은 영화촬영지로 인기가 높아져 충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⁶⁾ 후오지엔치(霍建起)는 영화 <생활쇼(生活秀)>(2001)의 촬영지로 원작소설의 배경인 우한(武漢) 대신 충칭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충칭에서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신구(新舊)가 공존하는 충칭의 도시경관은 생활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사람들에게 가져

- 4) 왕샤오밍(王曉明), 김명희 외 옮김,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2014, 267쪽.
- 5) 張國雲·段曉昀, <欲望的隱秘与怒放: 張一白電影中的渝城映像>, 《當代電影》1期, 2013, 198쪽. “重慶立體多元的城市結構讓頭有了更大的調度空間, 進而形成豐富多樣的敘事景觀.”
- 6) <生活秀>(2001), <周漁的火車>(2001), <押解的故事>(2002), <十面埋伏>(2004), <背軍挎上學的娃>(2005), <瘋狂的石頭>(2006), <好奇害死貓>(2006), <滿城盡帶黃金甲>(2006), <三峽好人>(2006), <雙食記>(2007), <落葉歸根>(2006), <秘岸>(2007), <門>(2007) 등의 영화가 있다.

다 준 생존의 압박감을 표현한다고 덧붙였다.⁷⁾ 신흥 영화도시 충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도시에 대한 21세기 중국인의 체험과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전제는 도시에 대한 허구적 재현물인 문화텍스트는 도시의 물질적 공간에 대한 투명한 묘사도 아니며 도시의 추상적·은유적 발명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글은, 물질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혹은 물리적인 공간과 재현적인 공간의 구분을 지양하고, 문화텍스트를 도시의 모순과 갈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충칭에 관한 문화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충칭의 도시문화 성격을 읽어내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화의 모순과 갈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루오위(羅渝)의 소설 《실종된 상청사(失蹤的上清寺)》⁸⁾ 등을 분석함으로써, 거대한 변화로 인해 충칭 도시문화가 급격히 망각되어가는 현실에서 흔적 탐색을 통해 도시문화를 재구성해가는 노력과 그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충칭을 배경으로 한 장이바이(張一白)의 영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好奇害死貓)>⁹⁾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사회전환기의 인간의 생존상태와 정신상황, 특히 도시 공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계층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칭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충칭모델’을 정치적·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었다.¹⁰⁾ 충칭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구체화된 모델로 연

- 7) 霍建起, <<生活秀>—藝術總結>, 《電影藝術》4期, 2002, 39-40쪽.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 지칭가(吉慶街)을 장소 배경지로 한 츠리(池莉)의 《生活秀》이다.
- 8) 羅渝, 《失蹤的上清寺》, 重慶出版社, 2008.
- 9) 張一白, <好奇害死貓>, 2006.
- 10) 이홍규, <보시라이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 《현대중국연구》 14, 2012; 성근제, <보시라이(薄熙來)의 리더쉽과 “충칭모델”>, 《동아시아 브리프》 5, 2010; 강준영, <중국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의 정치학>, 《국제지역연구》 17, 2014; 프레드 골드슈타인, <충칭 모델과 광둥 모델: 중국 공산당 내의 투쟁>, 《정세와 노동》 80, 2012; 崔之元, <重慶經驗進行時: 國資增與藏富于民并進>, 《政治經濟學評論》 第1卷 第4期, 2010 등.

구되거나, 서부대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 위치지우기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전략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처럼 충칭모델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충칭의 도시문화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도시연구·도시문화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이라는 국가를 단일체로 전제한 후 중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혹 도시연구·도시문화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 진행되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들어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칭의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현실의 일면을 읽어보고자 한다.

II. 기억 공간으로서의 도시: 소설 《失蹤的上清寺》를 중심으로

루오위(羅渝)와 그의 소설 《실종된 상청사(失蹤的上清寺)》¹¹⁾에 대한 어떠한 비평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알 수 있듯, 아마추어 작가인 루오위의 유일한 작품인 이 소설은 중국내 문학 전문가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충칭 일간지에서는 이 소설을 적지 않게 소개했으며 특히 인터넷에서는 독자들의 찬사가 잇따랐다. 이 소설의 가치는 도시개발로 인해 충칭의 역사문화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실종된 상청사》를 텍스트로 삼아 충칭 도시 공간에 각인되어 있는 역사문화의 흔적을 찾아내고 기억을 재구하는 작업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충칭은 개발과 철거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충칭 특유의 도시문화와 역사가 남아 있어 신구가 병치, 공존하는 도시다.

11) 羅渝, 《失蹤的上清寺》, 重慶出版社, 2008. 이 글에서는 도서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인터넷 소설 《失蹤的上清寺》를 참고하였다.

<http://www.dzxs.net/book/20026/index.html>. (검색일: 2015.7.2)

왕샤오쉬(王小帥)는 자신의 영화 <충칭블루스(日照重慶)>의 촬영지로 충칭을 택한 이유를 <충칭: 도시와 영화(重慶: 城市與電影)> 좌담회에서 언급했다. “충칭은 대도시이지만 도시 밀바탕에는 다른 중국 대도시에서는 이미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문색채를 보존하고 있다. 이 점이 내가 만들려는 영화에 상당히 부합하기에 충칭에서 영화를 촬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도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데 이것이 충칭의 장점”¹²⁾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충칭의 매력은 오랜 역사문화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데 있다. 거대한 도시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다채로운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이유는 도시의 역사와 과거의 흔적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충칭은 삶의 공간일 뿐 아니라 기억의 저장고 역할도 한다. 벤야민이 말했듯이, 도시는 일종의 도서관처럼 많은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도서관으로서의 도시는 물질적인 자료와 비물질적인 자료들을 흔적으로 간직하고 있다.¹³⁾ 도시는 거대한 역사의 흔적뿐만 아니라 사소한 개인의 흔적도 간직하고 있는 흔적의 보고다. 만약 도시 공간에 남겨진 흔적이 제거된다면 이때 사라지는 것은 도시 공간의 물리적인 흔적만이 아니다. 도시와 관련된 개인의 기억, 추억도 더불어 사라진다.

최근 충칭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이라는 대대적인 도시 재정비 즉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재개발은 일종의 “강제적인 망각”¹⁴⁾이라는 비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강제적인 망각에 대항

12) 董小玉, <重慶, 一座被胶片定格的城市—論重慶電影與巴渝文化的關係>, 《新聞研究導刊》2期, 2012, 28쪽. “重慶整體的感覺給我很大的震撼。重慶既有大都市的一切, 在大都市底下也保存着中國大都市已經很少見到的人文色彩, 我覺得這跟電影非常契合, 決定在此拍攝。一個都市具有特別吸引人的地方, 這是重慶的優勢。”

13) 심혜련, <도시 공간 읽기의 방법론으로서의 흔적 읽기>, 《시대와 철학》 제 23권 2호, 2012, 70쪽.

14) 심혜련,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19권 3호, 2008, 119쪽.

하여 충칭의 민간 역사와 도시의 흔적 읽기를 모색하는 문화텍스트들이 등장하는데, 2007년 인터넷에 연재되어 커다란 호응을 얻은 후 서적으로 출간된 《실종된 상청사(失蹤的上清寺)》가 대표적이다.¹⁵⁾ 도시탐험소설¹⁶⁾로 분류되기도 한 《실종된 상청사》는 2010년 진귀짜오(金國釗) 감독에 의해 동명의 TV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¹⁷⁾ 소설과 드라마 모두 보물찾기라는 모티브를 기반으로 한다. 차이점으로는, 소설이 보물찾기 모티브를 통해 충칭 도시공간의 역사 흔적과 문화를 고고학자처럼 탐색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TV 드라마는 숨겨진 보물찾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중점을 두는 데 있다.

소설 속 상하이 여성 쉬민(徐敏)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충칭의 상청사로 출가한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삼촌에게 유물을 전해주러 찾아온다. 상청사를 찾는 과정에서 '나'와 라오증(老曾), 판티엔방(潘天樺)이 조력자로 등장하고 네 사람은 쉬민의 할아버지가 남긴 장보도(藏寶圖)를 따라 수수께끼를 풀어가게 된다. 소설은 순차적인 추리식 구성을 통해 충칭의 오랜 문화유적과 이미 망각된 옛 지명의 전고, 전설, 소문을 펼쳐놓는다.

급속한 도시 발전 때문에 도시의 오랜 기억이 외면 받고 있을 때 현대 도시 뒤편으로 밀려난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가 루오위(羅渝)가 선택한 방식은 추리식 구성이라는 측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소설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경계를 허물으로써 소설 외적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소설 속의 '나'는 작가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도시 인식을 대변한다. “《실종된 상청사》를 쓰고 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실제 충칭 역사의 풍부하고 심오하고 다채롭고 미스터리하고 드높은 기세가 소설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¹⁸⁾ 나아가 소설은 충칭의 역사와 문화, 장소를 허구

15) 羅渝, 《失蹤的上清寺》, 重慶出版社, 2008.

16) 江筱湖, <城市探險小說打造小新類型>, 《中國圖書商報》, 2008年 2月26日, 第003版.

17) 金國釗, TV 드라마 <失蹤的上清寺>(24集), 2010.

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채 서사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를 위해 작가는 충칭의 향토사학자 샤오능주(肖能铸)의 고증과 역사 일화전문가의 교정을 거치기도 했다.¹⁹⁾

소설 외적 세계가 소설 내적 세계로 굴절 없이 투영되는 과정을 통해 소설은 도시의 문화기억을 복원하고 재현한다. 홍애동(洪崖洞), 노군동(老君洞), 심심커피숍(心心咖啡館), 십팔제(十八梯), 조천문(朝天門), 호광회관(湖廣會館), 통원문성곽(通遠門城牆), 불도관(佛圖關), 동수문(東水門) 등과 같은 장소를 통해 충칭의 실제 역사와 기억의 흔적들이 소설 속에 제시된다. 중공남방국(中共南方局), 주공관(周公館), 가락산(歌樂山), 홍암촌(紅巖村), 사재동(渣滓洞), 백공관(白公館), 이자패(李子壩), 해방비(解放碑) 등의 장소를 통해서도 충칭의 홍암(紅巖)문화와 항전(抗戰)문화에 얽힌 역사와 일화가 전개된다. 항일전쟁시기 충칭은 중국의 임시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설은 강조한다.

주인공의 탐문 경로를 따라 독자에게 제시되는 것은 충칭의 다양한 장소와 역사 속 인물에 그치지 않는다. 고대시기부터 민국시기까지의 역사적 전고와 비교적 최근의 유명한 일화, 도시전설 또한 펼쳐진다. 장보도를 따라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맨 먼저 떠오른 단서는 콩얼(孔二) 아가씨이다. 1940년대 초 임시수도 시절 쑹메이링(宋美齡)의 외조카 콩링권(孔令俊) 즉 콩얼 아가씨와 관련된 심심커피숍(心心咖啡館)의 일화, 보물과 관련된 콩얼 아가씨의 일화와 같은 도시 전설이 전개된다.

지난 세기 3, 40년대 충칭의 유명한 만담꾼 청즈시엔(程粹賢)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는 아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충칭을 떠들썩하게 만든 평서 <심심커피숍> 이야기 속의 그 유명한 라이터를 중화

18) 江筱湖, <城市探險小說打造小說新類型>, 《中國圖書商報》, 2008年 2月26日, 第003版. “寫完《失蹤的上清寺》後, 我才發現重慶的歷史實在是博大精深, 精彩、懸疑、氣勢磅礴, 遠遠超過故事本身。”

19) 夏婧, <肖能鑄:用故事留住重慶的昨日時光>, 《重慶日報》, 2010年 11月12日, 第B06版.

인민공화국 건립 이전, 중국의 4대 집안이 전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의 명맥을 장악했는데, 그것은 장(蔣), 송(宋), 콩(孔), 천(陳)씨 집안이었다. 콩얼 아가씨의 모친은 송씨 집안 세 자매 중의 첫째였고, 그녀는 송메이링(宋美齡)이 가장 사랑한 생질녀이자 콩상시(孔祥熙)의 둘째 딸이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40년대 전후다. 당시 콩얼 아가씨는 충칭의 가장 호화스런 심심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은 대략 현재의 뉴욕 뉴욕 빌딩의 일층일 것이다.....20)

임시정부 시기, 충칭은 중국 전체의 정치·경제 중심지였다.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충칭에 거주하였는데 부패한 정치, 빈번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 기회가 아주 많았다.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중국의 몇 분의 일의 재물이 충칭에 숨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충칭이 해방(공산당 정권의 충칭 진입-인용자 주)될 때, 국민당의 패배와 퇴각은 아주 신속했다. 공산당이 충칭에 진입하자 국민당은 비행기를 타고 도주했지만, 계급이 높지 않은 사람, 고관의 부관, 호위는 비행기에 탈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대량의 보물을 남겼고 이 보물들은 충칭에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충칭시 여러 지하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민국의 진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충칭의 지하도는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지만 이미 3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당신은 진(秦)시대의 장의(張儀)를 알지요? 목가의 유명한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신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는 강주태수(江州太守)를 역임했었지요. 지금의 충칭 시장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충칭 최초의 고대 성곽을 건설한 이도 바로 그 사람이죠. 설마 당신이 말하려는 것이 장의가 충칭에서 태수를 역임할 때 밀도(密道)의 기계장치를 설치해놓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야

20) 羅渝, 《失蹤的上清寺》, <http://www.dzxsw.net/book/20026/3197.html>, (검색일: 2015.7.2) “第四章 <孔二小姐>: 上世紀三四十年代, 重慶最著名的評書人程梓賢, 也許已經去逝了吧, 他一定想不到, 他最轟動重慶的評書‘心心咖啡店’中那只著名的打火機.....解放前, 中國有四大家族, 掌握了全中國的政治、經濟與軍事命脈, 就是蔣、宋、孔、陳四家人, 孔二小姐的母亲是宋氏三姐妹之一, 是宋美齡最疼愛的外甥女, 孔祥熙的二女兒。..... 那個故事發生在1940年左右, 當時孔二小姐在重慶最豪華的心心咖啡館里喝咖啡, 那個地方大概就是現在紐約紐約大廈的一層 ”

사에서 말하길, 장의는 재산이 아주 많아서 충칭 곳곳에 재산을 숨겼는데 어느 누구도 그곳이 어딘지 몰랐답니다. …… 장의 시대부터 임시정부 시대 까지 몇 천 년 동안 이 넓은 충칭의 지하도는 언제나 큰 보물창고였지요.²¹⁾

충칭 역사에 대한 소설의 전고와 해석 대부분은 충칭의 향토사학자로 등장하는 라오증을 통해 서술된다. 실제로 작가는 이 소설을 인터넷에 연재하면서 향토사학자와 역사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윗부분의 대화는 라오증과 서술자인 ‘나’가 서로 나누는 말이다. 할아버지가 남긴 장보도로 보물을 추적하던 쉬민은 할아버지가 단서를 남긴 의도를 알게 된다. 쉬민의 할아버지는 충칭 임시정부 시절 국민당 정권의 경찰이었는데, 이런 신분 때문에 콩얼 아가씨가 제공해준 보물지도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할아버지는 충칭의 보물이 전부 국민당 관리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화재로 소실되어 역사에서 사라진 상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보물의 일부를 딴 곳에 숨기게 된다. 그리고 쉬민은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단서를 두 아들에게 남겨준 이유는 망각된 가족사를 알려주고 계승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렇듯 소설은 도시인의 일상, 개인사, 가족사를 도시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

21) 羅渝, 《失踪的上清寺》, <http://www.dzxsw.net/book/20026/3202.html>, (검색일: 2015.7.2)

第九章 密道: 在陪都時代, 重慶是全中國的政治和經濟中心, 中國最有錢最有權的人, 都在重慶居住, 由于政治腐敗, 战争頻繁, 撈錢的機會太多了 …… 可以講那時候, 起碼中國的幾分之一的財寶都藏在重慶 …… 重慶解放的時候, 國民黨敗退得非常快, 解放軍進城, 國民黨只能坐飛機逃跑, 級別不夠的人, 包括一些高官的副官、待衛, 都沒有資格上飛機, 留下了大量的財物, 失散在重慶城里。所以一直有傳說重慶城里許多地道中, 埋藏着數不清的民國寶藏。…… 重慶的地道大的大, 小的小, 已經有近三千年歷史了。你知道秦國的張儀吧? …… 是墨家的知名人物 …… 不過他有另一個身份許多人不知道, 他曾經做過江州太守, 就是那時的重慶市長。重慶最早的古城牆是他修建的 …… 你的意思難道是張儀在重慶駐守時, 留下了裝着機關的密道? …… 有野史講, 張儀富可敵國, 他把不少財產留在重慶城里, 只是誰也不知道在哪里。…… 從張儀時代, 到陪都重慶, 諾大一個重慶地下, 幾千年來, 都是一個大寶庫啊。

짓는다.

샤오민이 나의 손을 잡고서 말했다. 오빠, 이 도면에서 언급하는 보물창고는 이미 60여 년 전 것입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찾든지 상관없습니다. 요 며칠 동안 오빠와 증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많은 곳을 찾아다녔고 할아버지의 많은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마치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

…… 사실, 내 마음은 여전히 그런 신비한 보물 창고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보물을 찾는 경험을 간절히 바랬다. 만일 샤오민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삼일 째 시시각각으로 충청의 역사적 장면이 한쪽 한쪽 펼쳐졌고 내 마음은 시공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감동으로 충만했다. …… 나는 샤오민에게 말했다. …… 너의 장보도로 인해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이 도시에서 이토록 멋진 것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설령 12장 도면에 있는 어떤 보물도 찾지 못할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한다.²²⁾

취민과 서술자인 ‘나’의 진술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소설 《실종된 상청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보물찾기라기보다는 충청 도시공간의 역사문화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다. 보물은 도시역사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한 당의정 혹은 매개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 충청 거리와 오랜 건축물에 대한 묘사는 정확하고 사실적이다. 하지만 실

22) 羅渝, 《失踪的上清寺》, <http://www.dzxsw.net/book/20026/3220.html>, (검색일: 2015.7.2) 第二十八章 潘天棒加入: “小敏握了我一下手, 說道: “大哥哥, 這些圖紙涉及的藏寶, 已經有60多年了, 我真的不在意能找到什麼。這幾天你和曾伯伯陪我找了這麼多地方, 知道了爺爺那麼多的事。走在這些路上, 我真有一種幸福的感覺, 就象在爺爺身邊一樣。…… 其實, 在我心里固然期望尋到那些神秘的寶藏, 另一方面却也一直盼望着這種尋寶的經歷。要不是遇到小敏, 在我平淡的生活中, 不可能突然卷入這樣的事情。兩三天來, 隨時都象翻開了一幅幅重慶的歷史畫卷, 心中充滿了一種時空交錯的激動。…… 我告訴小敏 …… 沒有想到, 因為你的藏寶圖, 讓我發現我這個從小長大的城市還有那麼多精彩。即使12張圖都找不到東西, 我也會覺得很值。”

제 지리공간과의 비교를 통한 정확도 확보는 작가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 실제의 장소, 건축물과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을 근거로 삼아, 작가는 충칭의 다양한 문화공간, 다양한 역사 시간대를 오가면서 충칭을 역사문화가 풍부한 도시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소설은 충칭판 <다빈치 코드(The Da Vinci Code)>²³⁾로 불릴 만큼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내기도 했다. 그 예를 상청사(上淸寺)에서 찾을 수 있다. 충칭사람에게 있어서 상청사는 잘 알려진 지명이지만 <실종된 상청사>가 등장한 뒤 상청사의 개념에 변화가 일어났다. 1940년대 상청사는 충칭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국민당 정부의 행정기구와 정치계 인사들의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중공 남방국과 주공관(周公館)이 위치한 곳이기도 했다. 상청사는, 충칭의 역사상 가장 변화했던 시기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충칭을 상징하는 건물인 충칭대예당(重慶大禮堂)이 위치하고 충칭인민광장(重慶人民廣場), 충칭중국삼협박물관(重慶中國三峽博物館) 등이 위치하고 있는 충칭의 정치적 중심지에 소재하고 있었다. 이렇듯 상청사는 충칭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는 곳이지만 이 도교 사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소설은 상청사가 어디 있느냐는 쉬민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 곳을 알려주지만 쉬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왜냐하면 쉬민은 상청사라는 도교 사원을 찾고 있었지만 ‘나’는 상청사로 불리어지는 현재의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청사라는 단어는 여전히 유효한 지리공간적 좌표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상당한 규모와 지위를 뒤로 한 채 실종되어 버렸다. 쉬민의 질문은 상청사의 실종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의 의문도 없이 지명으로 환원하여 사용하고 있던 ‘나’에게 인식적 충격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도교사원 상청사에 대한 질문은 2007년의 이 소설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23) 론 하워드, 영화 <다빈치 코드(The Da Vinci Code)>, 2006.

역사 탐색, 보물찾기, 모험 등 독자의 관심을 쉽게 불러일으킬 요소를 동원하고, 독자 스스로 증거를 찾고 비밀을 추적하게 하는 서사구성 그리고 실제 역사와 공간을 담음으로써, 소설은 도시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의식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책이 출판된 후 네티즌들은 스스로 소모임을 조직하여 충칭의 도시보물 찾기 활동을 하는 등 도시 여행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 손에는 소설 《실종된 상청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충칭의 지도를 들고서 고증과 동시에 도시를 탐색하는 상청사 붐이 일어났다.²⁴⁾

추리식 구성에 내재된 질문들이 실제 도시 역사·경관과 결합하면서, 충칭의 옛 지명, 전고와 전설, 소실된 고건축군과 문화유적이 현실공간에 적극 소환되었다. 소설 내적 세계와 소설 외적 세계 사이에 놓인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전개되는 장소 기억의 탐색 혹은 장소 정체성의 탐문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한 “강제적인 망각”에 대한 저항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장소 정체성의 소멸과 획일화된 생활양식을 요구할 때, 도시 충칭의 기억과 흔적을 회복하려는 루오위의 《실종된 상청사》는 중국 도시화에 대한 의미 있는 문화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충칭이 현재 중국의 전형이라 한다면 소설이 묘사한 것 역시 여타 역사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Ⅲ. 문화텍스트로 본 충칭문화의 현실과 갈등: 영화 <好奇害死猫>를 중심으로

직할시 승격 이후 충칭은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다원화된 가치관의 급격한 형성을 배경으로 삼아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물질적 욕망을 부각하고 표출하게 된다. 문화텍스트에서도 사회전반의 배금주의, 물질

24) 夏舞空間, <寻找失落的都市文明>, 《中国圖書商報》, 2008年 3月 11日, 第004版.

만능주의를 재현함으로써, 마치 모든 문제와 사회관계가 화폐를 통해 해결되고 평가되는 사회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충칭의 문화텍스트가 재현하는 도시민의 욕망, 계층 간의 갈등 심화에 초점을 두고 도시화와 현대인의 사회심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장이바이(張一白)의 영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好奇害死猫)>(2006)를 통해 도시화가 요구하는 욕망 그리고 하위계층에 대한 시선의 문제를 살필 것이다.

충칭 출신 영화감독인 장이바이(張一白)²⁵⁾가 충칭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 이유로 언급한 내용도 이와 맥이 닿아 있다. “이것(충칭의 삶-인용자)은 바로 중국 당대의 대표적인 생활의 모습이다. 옛 것은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건설되고 있다. 내가 몰래 담으려 한 것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면서 막 사라지려는 욕망과 애정 그리고 배후에서 이 감정들을 조종하는 계급과 지위이다.”²⁶⁾ 장이바이의 영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가 상영될 당시 영화의 공식 홈페이지는,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미스터리 속 사랑의 빛과 어둠”, “최근 20여 년 중국의 축소판”이라고 영화를 소개했다.

장이바이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뿐만 아니라 <비안(秘岸)>(2007)에서도 고향 충칭을 촬영지로 선택했으며, 그가 제작한 영화 <쌍식기(雙食記)>(趙天宇, 2007)의 촬영지를 충칭으로 변경하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그의 영화는 도시화와 그로 인한 욕망의 변화 그리고 권력의 문제를 충칭이라는 도시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그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비

25) 장이바이(張一白): 2000년 이후 ‘중국 신도시 영화’를 만든 장이바이는 충칭에서 나고 자란 충칭 출신으로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탄광의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다. 하지만 힘든 노동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한다. 중앙희극대학(中央戲劇學院) 졸업 후 드라마 <영원한 사랑(將愛情進行到底)>(1998)과 영화 <봄으로 가는 지하철(開往春天的地鐵)>(2002)로 영화계와 텔레비전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게 된다.

26) 張一白, <做一個偷拍者—〈好奇害死猫〉闡述>, 《當代電影》9期, 2008, 102쪽. “這是當代中國的標本生活：舊的被破壞，新的在建設。我的偷拍，將是這個急劇變化的衆生相，想捕捉到那種稍縱即逝的欲望和愛情，和這之後的階級和地位的操縱。”

안>에서 충칭을 욕망의 도시로 묘사하면서 현재 중국 도시의 복잡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비안>은 청춘기의 샤오추안(小川)이 겪는 경험들 이를테면 아버지를 잃은 고통, 첫사랑, 모친에 대한 반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샤오추안이 재현하는 청춘기의 조바심, 조속한 성장은 충칭 사람들의 도시화 과정 경험과 맥을 같이 한다. <비안>은 도시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급격하게 짓누르기 시작하는 생활의 압박감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인의 모순적 심리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도시발전이 가져온 장점들을 갈망하면서도 도시발전으로 인해 감정, 도덕윤리, 가치관의 상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칭을 욕망의 도시”로 정의한 장이바이는 욕망이 바로 희망이라고 긍정한다. “충칭은 뉴욕처럼 욕망이 충만한 도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욕망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²⁷⁾한다. “나는 이 도시가 아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다. 청두(成都), 쿤밍(昆明)과 비교해서 이곳은 더 열정적이다. …… 이렇게 극도로 흥분된 눈빛, 왕성한 정신과 열정이 넘치는 체력, 이것이 바로 이 도시의 희망”²⁸⁾이라고 말한다. “감정, 욕망, 신체를 사용하여 영화의 본질과 이야기의 진실을 남몰래 화면에 담고 싶다”²⁹⁾는 장이바이의 바람은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에서 그대로 실현된다. 장이바이는 이 영화를 촬영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27) 蔣光春, <城市形象包裝意識的苏醒>, 《重慶日報》, 2009年6月19日, 第6版. “在張一白的心目中重慶就是一座欲望之都”, “重慶和紐約一樣, 是一座充滿了欲望的城市. 但正是這樣的欲望, 讓人不斷地追求更美好的生活.”

28) 李俊, <張一白專訪“我置身他們之中, 我不悲天憫人”>, 《外灘畫報》310期, 2008, 199쪽. “我覺得這個城市(重慶)還是很欲望. 相比成都、昆明, 它更火爆、更強烈 …… 這種亢奮的眼神、旺盛的精力, 是種有力量的東西, 是這個城市的希望.”

29) 張一白, 앞의 글, 102쪽. “用感情、欲望、身体去做一個電影本質和故事真相的偷拍者.”

나는 이곳의 남자와 여자를 사랑한다. 기품 있는 좋은 사람이든 신중한 부자든 잘난체하는 사람이든 비천한 노동자든 조금하게 서두르는 시민이든 이리저리 전전하는 약자이든 간에 이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은 경외로운 강인함과 생기 넘치는 욕망으로 충만한데, 이것들은 아주 적나라하고 조금도 억제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부러워하며 서로 대립하고 대체되기를 갈망한다.³⁰⁾

장이바이의 영화는 당대 중국 신흥도시의 독특한 도시이미지를 재현한다. 그가 그리는 충칭은 양면적이다. 하나는 변화하고 요란한 대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팔계(十八梯)의 낮은 청석(靑石) 계단과 골목이다. 영화가 전개되면서 전통적이고 회고적 정서는 점점 사라지고 신구(新舊) 도시 공간의 모순과 갈등이 부각된다. 이런 독특한 도시경관은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대비, 계급 간의 격차, 주거공간의 차별 등 층차감이 뚜렷하고 숨겨져 있던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전개되는 인간사의 비극으로 확장된다. 충칭의 도시 공간, 도시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인의 성격 모두 장이바이의 영상 속에서 재구성되면서 충칭의 윤곽이 그려진다. “충칭은 현실적인 도시다. 만약 상하이로 주는 느낌이 따뜻함, 부드러움이 라면 충칭은 음랭함, 견고함으로 도시의 신구 대비가 뚜렷하다”³¹⁾고 장이바이는 말한다. 그래서 그의 영화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본 정서는 어둠이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양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충칭의 뚜렷한 지역성을 전시한다. 하지만 영화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공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빈부격차, 계층갈등이

30) 같은 글, 102쪽. “我愛這裡的男人和女人。無論是高貴的好人、矜持的有錢人、趾高氣揚者還是卑微的打工者、行色匆匆的市民和輾轉的弱者，在這個城市的天空下，他們臉上都充滿着令人敬畏的堅韌和朝氣蓬勃的慾望，毫不掩飾，毫不壓抑。他們彼此敵視又相互羨慕；彼此對立又渴望取代。”

31) 燕達, <在現實之城里尋找溫暖——與張一白一起解讀<秘岸>>, 《電影》12期, 2008, 60쪽. “重慶則是現實之城，如果說上海給人的感覺是溫暖、柔軟，那麼重慶就是陰冷、堅硬，城市的新舊對比很明顯。”

다. 부유한 집안의 딸 치엔위(千羽)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 즉 치엔위의 남편 정중(鄭重),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여자 량샤오시아(梁曉霞), 그리고 경비원 류펀더우(劉奮斗) 모두 빈민계층 출신이다. 계층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거주공간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영화 속의 배경지인 위중구(渝中区)는 하반구, 중반구, 상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역들을 잇는 것은 청석 계단인 십팔제다. 거주지의 위치를 갖대로 삼아 경제적 상황과 계층을 가늠할 수 있는데, 하반구에는 주로 하위계층이 거주하며 고급빌라 하이커잉저우(海客瀛洲)가 있는 상반구는 상위계층의 거주구역이다. 치엔위는 하이커잉저우의 제일 높은 층에 거주한다. 이 빌라의 옥상에서는 충칭의 중심가인 위중구의 밀집된 건축군과 변화한 거리가 내려다보인다. 반면 류펀더우는 이 빌라 지하에 있는 차고의 어둡고 창문도 없는 누추한 다락방에 거주한다. 치엔위의 남편 정중은 치엔위와의 결혼으로 신분상승을 이루지만 하이커잉저우의 어디에도 그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정중과의 혼외정사의 공간인 량샤오시아의 거처는 십팔제의 좁은 골목에 있다. 십팔제의 좁고 낮은 방은 주변의 마천루로 포위되어 있으며 원경의 고가도로와 그 위의 자동차들 그리고 변화한 도시 경관에 짓눌려 있다. 영화의 공간과 일상의 삶은 팽팽하게 긴장된 대립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앙리 르페브르에게 있어 공간은 그저 사물들을 담는 텅 빈 용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공간은 ‘주체’도 대상도 아닌 사회적 현실, 다시 말해서 관계와 형식의 총체”³²⁾이다. 영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을 표현하고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주체의 행위와 심리를 드러낸다. 공간의 대조와 욕망의 충돌은, 충칭 내 계층 간의 모순과 갈등 나아가 급진적인 경제개발로 인한 중국사회의 빈부 차별과 갈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은 뚜렷한 층차감을 지닌 충칭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통해 제시된다.

32)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194쪽.

하지만, 장이바이는 치엔위에 대한 류펀더우의 강렬한 감정을 순수한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종과 량샤오시아의 욕망을 배치한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미스터리물로 러브스토리를 포장하고 심지어 경비원과 귀부인 간의 나약하고 가망 없는 사랑을 그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써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후권(胡軍, 정종으로 분함-인용자 주)과 송자(宋佳, 량샤오시아로 분함-인용자 주) 간의 욕망이다. 우리는 경비원을 통해 신분이 비천한 자의 사랑에 대한 집착과 헌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다. 내가 흥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유형화의 포장은 필요하다.³³⁾

충칭 출신인 장이바이가 그려내는 충칭은 충칭 출신이 아닌 감독이 도시경관을 통해 충칭의 정체성이라고 그려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일반적으로 충칭 사람은 불같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지만, 장이바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감정과 엉큼한 심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다른 영화에서는 배경으로서의 도시경관으로 제시되는 산성(山城) 충칭의 지형구조적인 자연환경을 장이바이는 계층 간 격차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연결 짓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계층·공간적 격차에서 기인한 욕망들을 통상적인 윤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귀부인 치엔위는 고급빌라의 고층에 거주하고 경비원 류펀더우는 그 건물의 지하실에 거주한다. 그들의 관계는 모호하고 비정상적이다. 치엔위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류펀더우를 이용하고 금전을 지불하면서 “너는 경비원일 뿐이다”고 말한다. 류펀더우는 치엔위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섬세하게 꾸며진 치엔위의 거

33) 張一白·吳冠平, <孤單是一種都市的告白——張一白放談>, 《電影艺术》1期, 2009, 84쪽. “《好奇害死貓》是用懸疑驚悚故事包裝一個愛情故事, 甚至爲了寫一個保安和一個貴婦之間那種脆弱的, 遙不可及的“愛情”, 我還必須寫另外一個故事, 就是胡軍和宋佳之間的情欲。我們可以在廖凡上身上看到一個卑微者爲了愛情的執着和獻身, 我覺得那是一段純粹的愛情, 我感興趣的是這個東西, 但我需要類型化的包裝。”

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달라 하거나 그녀의 옷을 골라주며 자신을 위해 옷을 갈아입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녀의 침실에 들어가 앉기도 한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경비원이라는 신분을 일깨우는 치엔위에게 “우리는 평등하다”고 강변하면서 대등한 관계임을 주장한다. 감독은 치엔위에 대한 류펀더우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설명한다. 감독의 이런 시선은,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의 묘사 중 정착민과 토착민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탈식민주의의 이중성을 환기시킨다.

토착민이 정착민 도시를 바라보는 눈길은 탐욕의 시선, 부러움의 시선이다. 그 눈길은 소유에 대한 그의 꿈들을, 소유의 모든 방식을 표현한다. 정착민의 식탁에 앉거나, 가능하다면 정착민의 침대에서 그의 백인부인과 잠을 잤으면 하는 소원 말이다. …… 자신을 정착민의 자리에 두고 싶은 꿈을 단 하루라도 꾸지 않는 토착민 남자는 없기 때문이다.³⁴⁾

치엔위와 류펀더우의 관계에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류펀더우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욕망이 좌절되어 그가 하이커잉저우의 꼭대기에서 몸을 날릴 때, 예전 바로 그곳에서 저 강을 따라가면 자신의 고향이 있었다던 그의 말이 중첩되면서 욕망의 허위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장이바이는 류펀더우의 그러한 욕망이 충칭을 들끓게 하는 희망이라고 말한다. 장이바이의 영화는 계층적 격차로 인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나 이주민 개인의 이중성에 주목하는 대신 개인의 고통 위에서 진행되는 도시의 불안하고도 급격한 변화를 역동성이라고 묘사한다. 빌라 경비원인 농민공 류펀더우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과 모순, 특히 충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도농 이원체제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장이바이의 카메라는 여기에는 무관심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문화텍스트도 존재한다. 그 중

34)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84-85쪽.

하나가 증시엔궈(曾宪国)³⁵⁾의 장편소설 《문천조개(門天朝开)》이다. 이 소설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라는 도시구조로 인한 농민공의 운명과 정신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직면한 중국 하위계층의 생존 문제를 다룬다. 충칭의 농촌지역인 우룽현(武隆县)에서 도시 충칭으로 이주한 농민 마오거우거우(毛狗狗)를 통해 농민공이 도시로 온 이후의 과정을 전형적으로 그려나가는 이 소설은, 장이바이와는 달리 충칭의 역동성, 급격한 발전은 심각한 계층 격차를 바탕에 두고 있음을 고발한다. 고향에 자신과 어머니를 남겨둔 채 충칭으로 간 후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그리고 범죄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한 제1세대 농민공 출신의 아버지를 둔 마오거우거우 역시 제2세대 농민공으로 충칭에 진입한다. 그는 처음에는 도시인이 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것의 모순성을 자각하게 된다.

나는 밤에 맥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것을 사소한 일로 보지 말고 더욱이 내가 요즘 들인 나쁜 습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 내게 있어 이는 도시 충칭에 대한 일종의 친밀감으로, 소용돌이치는 생활권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가기 위해 도시인의 생활방식을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⁶⁾

나는 도시인과 시골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비겁한 마음으로 도시에 왔고 도시인 면전에서 굶질거린다. 모든 것은 그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존엄을 상실하는 것조차 개의치 않지만 그러나 도처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변함없는 냉담과 무시뿐이다. 우리는 차라리 자신을 잊어버리면서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걷는 자세, 입맛, 생활습관 등 모든 것에서 그들을 모방하려 한다. 설

35) 曾宪国, 《門天朝开》, 重慶大学出版社, 2010. 증시엔궈의 시선은 충칭의 하위 계층을 향하는데 그의 소설 《嘉陵江邊一條街》, 《霧都》, 《入市》 등이 그에 해당한다. 충칭 방언을 사용하면서 충칭 시민을 형상화하는 그의 작품은 “당대 충칭의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라고 평가받는다.

36) 같은 책, 12쪽. “我喜歡上了喝夜啤酒。不要以為這是件微不足道的小事，更不要以為是我近來貪杯養成的陋習，對我來說，是對重慶城一種認同，因為我想融入它飛旋的生活圈子，學城里人過日子。”

령 그렇게 해도 그들은 왜 여전히 우리들에게 너그럽지 못한가? 여전히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기름과 물처럼 언제나 우리들 위에 떠 있으려 한다.³⁷⁾

그는 충청에서 도시인이 되고자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달리 모든 노력은 실패한다.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유골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은 소설의 결미인 마오거우거의 자각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쉬더밍(徐德明)은 이에 대해 언급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후 지역 농민의 신분적 지위는 강력한 권력에 의해 확립되었다. 50년 호적제도가 유지해온 도시와 농촌의 분리가 깨진다면, 농촌사람은 도시화라는 목표를 위한 노동력으로 흡수되어 도시로 진입하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현대화와 대면하게 된다. 하지만 먼저 현대화된 도시인과 평등한 신분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 새로운 신분과 주체적 지위를 획득하려 할 때 권력의 저지와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주체적이고 자발적 투쟁이 더욱 중요해진다. 신분의 변화와 단순한 경제적 지위의 성장을 구별하는 의식이 바로 주체 형성의 원동력이자 관건이다.³⁸⁾

거대도시 충청에는, 욕망과 좌절의 반복을 도시화의 근간으로 치부하는

37) 같은 책, 17쪽. “我難以想象城里人和乡里人究竟是不是同一種人。我們是帶着卑怯心理進城的，在城里人面前低三下四，一切都爲得到他們認可，甚至不惜喪失自己尊嚴，可是到處得到的却還是冷漠和白眼。我們宁可忘記自己，事事模仿他們一說話，穿衣，走路姿勢，吃東西的口味，生活習慣。即使這樣，他們爲什麼還不寬容我們呢？到頭來，還是跟我們格格不入，像油和水，總想浮在我們上面。”

38) 徐德明, 《中國現代現小說敘事的詩學踐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281쪽. “處于漫長歷史的城鄉分野中的農民, 其身份地位爲占強勢地位的權力確定。五十年戶籍制度維持的城鄉分野一旦被打破, 鄉下人作爲勞動力被納入了都市化的目標, 進了城, 懵懂地遭遇了現代性, 但沒有獲得和先行現代化的城里人平等的身份地位。爲確立新身份和主體地位, 他們在客觀上必然遭遇權力遏制, 主觀的自覺抗爭愈顯重要。意識到自我身份的改變與單純經濟地位的改善之間的區別, 正是主體建構的動力樞紐。”

장이바이의 영화 그리고 하위계층의 고통과 각성에 주목하면서 주체화의 계기를 모색하는 증시엔귀의 소설이 공존하고 있다. 공간적, 계층적 격차는 농민공과 도시인의 빈부격차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문화적·인식적 시각의 갈등과 중첩되면서 극심한 혼란상을 노정하고 있다.

IV. 나오면서

중국 공산당은 충칭을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실험의 도시, 서부대개발 전략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였다. 충칭에선 이런 취지의 개혁정책이 잇따라 추진되었고 이는 곧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른바 충칭모델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진화적 체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충칭모델의 절정기인 2012년에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가 실각하면서 중국에서 ‘충칭모델’에 대한 언급을 찾기란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충칭모델’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현으로 평가받던 당시 충칭의 도시문화와 인간의 생존상태를 문화텍스트를 통해 고찰하고자 했다. 텍스트로 충칭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이 도시가, 대도시와 대농촌, 거대한 산악지대와 큰 저수지대, 도시 갑부와 빈곤한 농민, 산악 빈민과 이주농민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 빈부격차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충칭은 그야말로 중국의 축소판”³⁹⁾·전형인 셈이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도시는 사회전환기 현실에서의 인간의 생존상태와 정신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기”⁴⁰⁾ 때문이기도 하다.

국무원이 비준한 <重慶市城鄉總體規劃(2007~2020)>과 2008년 충칭시

39) 리시광(李希光), 허재철 옮김, <‘민본 사회주의’ 위한 충칭(重慶)의 실험: 지금 충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민족 21》 114호, 2010, 83쪽.

40) 李蕾, <影片《好奇害死猫》和《秘岸》中的都市意象>, 《電影文學》8期, 2010, 47쪽. “這座复杂的都市最能彰顯出社會轉型時期現實生活中人的生存狀態和精神狀況.”

위원회 3회 3차 전회는 충칭을 혁명의 도시인 홍색(紅色)도시, 항전(抗戰)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역사문화도시(國家歷史文化都市)로 규정했다. 그리고 영화 등 문화생산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기획을 실천하고 있다.⁴¹⁾ 여기서 비롯된 문화생산물들은 홍색문화를 선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홍색공간과 항전공간의 도시 경관을 중시한다.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기획과는 무관하게 생산된 문화생산물들은 국가 이데올로기와는 거리를 둔 채 충칭이 마주한 현실을 형상화했다. 21세기 이후 생산된 소설과 영화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화 흔적의 소실과 도시기억의 망각에 대한 저항의 작업을 진행한다거나 충칭 도시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농민공 문제를 부각한다. 빈부격차는 물리적인 공간적 층차와 연동되어 재현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다양하다. 시선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충칭이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는 문화생산물들은 공통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급격한 도시화에 매몰되어가는 충칭의 지역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 역사의 문화적·인식적 복원, 혹은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공간적 재현, 광범위한 이주와 과도기적 도시화의 강조 등, 창작자가 나름대로 규정한 지역성이 적극적으로 전시된다.

21세기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현으로 평가를 받던 당시 충칭의 문화생산물이 특히 주목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도농이원체제의 폐해이다. 충칭 방언으로 제작되어 당시 큰 호응을 받았던 TV드라마 <산성방방권(山城棒棒軍)>(20집, 1997)은 경제개방 이후 농촌에서 이주한 농민공의 낙천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1996년 충칭이 직할시가 되기 전 경제적, 문화적 준비를 위한 노동력의 필요로 농촌의 인구가 충칭시로 유입되었고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조차 얻지 못한 농민공은 짐을 나르는 방방권(棒棒軍)의 일을 선택하였고 이것은 대대로

41) 혁명소설의 고전인 《紅巖》은 수차례 영화화되었다. <烈火紅巖>(2011), <我最好的朋友江竹筠>(2011), <走過雪山草地>(2012), <男兵女蓮連長>(2013), <京城81號>(2014), <獵殺>(2013), <利箭行動>(2013), <小鬼子走着瞧>(2013), <好家伙>(2013) 등 영화와 TV드라마가 그 예이다.

전해 내려오는 충칭인의 강한 생존방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드라마는 하위계층인 방방권의 시선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모순을 묘사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시를 응시한다. 농민공의 다양한 도시경험을 전시하면서 실패,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낙관적인 정신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드라마로 2008년 제2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충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빈부의 심각한 격차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도시생활은 신문명 생존방식의 은유이자 시대진보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도시는 진입이 힘겨운 공간이기도 하다. 지양지아루이(章家瑞)의 영화 <원뢰(迷城)> (2010)도 농촌 출신의 학생이 도시 충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도시생활로 진입하고자 하지만 도시에 의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묘사한다. 영화의 등장인물들 즉 농촌 출신의 대학생, 미용실 다공메이(打工妹), 농촌사람은 도시에서 생활의 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언제나 실패한다. 사회 하층민들은 가장 기초적인 물질적 조건도 심리적 귀속감도 획득하지 못한 채 변화한 도시에서 소외와 마주하게 되고 대부분 끝내 도시의 생존법에 적응하지 못한다. 영화가 묘사하는 그들은 늘 주류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생존의 압박과 정신적 추구의 실패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도농격차, 빈부격차를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동력 중 하나로 받아들일지 하위계층 개인의 고통에 주목할지는 문화생산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만, 충칭의 문화생산물이 이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충칭의 문화생산물은 중국 사회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쉬더밍과 증시엔귀가 지적했듯이, 농민공과 도시인의 빈부격차와 문화층들은 하위계층의 각성과 주체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그 격차가 더 심각해질 것인지,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ui Zhiyuan(kim Jingong). *Petit Bourgeois and Declaring Socialism— Liberal Socialism and The future of China*. Paju: Dolbegae Publishing, 2014.
2. Cui Zhiyuan, “Chongqing Jingyan Jinxingshi: Guozi Zengzhi yu Cangfu yu Minbingjin”(Chongqing experience: State capital appreciation and dividends Bing feed). *Zhengzhi Jingjixue Pinglun (Political Economic Review)* 1. 4, (2010).
3. Dong Xiaoyu. “Chongqing, Yizuo bei Jiaopian Dingge de Chengshi — Lun Chongqing Dianying yu Bayu Wenhua de Guanxi” (Chongqing, A city is fix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ongqing film film and the Bayu culture). *Xinwen Yanjiu Daokan(The news research guide)* 2, (2012).
4. Frantz Fanon(lee Seok-Ho). *Black Skin, White Masks*, Ilsan: Human love Publishing, 1998.
5. Henri Lefebvre(Yang Young Lan). *Production of Space*. Seoul: Ecolivre Publishing, 2011.
6. Huo Jianqi. “Shenghuoxiu—Yishu Zongjie”(Life Show: Art summary). *Dianying Yishu(Film art)* 4, (2002).
7. Jiang Guangchun. “Chengshi Xingxiang Baozhuang Yishi de Suxing” (Consciousness of urban image packaging). *Chongqing Ribao (Chongqing daily)*. 2009. 6.19.
8. Jiang Xiaohu. “Chengshi Tanxian Xiaoshuo Dazhao Xiaoshuo Xin Leixing”(New types of urban adventure novels). *Zhongguo Tushu Shangbao(China Book Business Daily)*. 2008. 2.26.
9. Lee Dongran. “Zhang Yibai Zaishu Chengshi Dianying: Bian Nanjie

- Chengshi Qingchun”(Speak city back to the movie is jangibai: Lost, Urban youth is a puzzle). *Sanlian Shenghuo Zhoukan(Life weeker)* 43, (2008).
10. Lee Hong Gyoo. “The Purge of Bo Xilai and the Future of Chongqing Model”.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14, (2012).
 11. Lee Jun. “Zhang Yibai Zhuanfang Wo Zhishen Tamen Zhi Zhong Wo Bu Beitian Minren”(An interview jangibai We are in their midst does not, and we are sad). *Waitan Huabao(The Bund)* 310, (2008).
 12. Lee Lei. “Yingpian Haoqi Haisi Mao he Bian Zhong de Doushi Yixiang” (Urban Image of Lost and Curiosity killed the cat). *Dianying Wenxue(Movie Literature)* 8, 2010.
 13. Li Xiguang(Heo Jai Chul). “Chongqing's Trials for Socialism’ Minbon: Do you have in Chongqing, what's going on in now?”. *Ethnic group* 21 114, (2010).
 14. LuoYu. *Shizong de Shangqingsi*. <http://www.dzxsw.net/book/20026/index.html>.
 15. Shim Hea-Ryun. “Spur und Spurlesen als eine Methode für das Lesen vom Stadtraum”. *Age and philosophy* 23:2, (2012).
 16. Shim Hea-Ryun. “Stadtraum, Spur und Flaneure”. *Age and philosophy* 19:3, (2008).
 17. Wang Shaoming(Kim Meonghee). *To Look Out Near and Distant View: Research Culture of Wang Shaoming*. Seoul: Cuiture and History of Science Publisng, 2014.
 18. Xu Deming. *Zhongguo xiandai xiaoshuo xushi de shixue jianxing (Poetic Attribute of contemporary Chinese epic novel)*. Shanghai: Shehui Kexue Wenxian Chubanshe, 2008.

19. Xia Jing. “Xiao Nengzhu: Yong Gushi Liuzhu Chongqing de Zuori Shiguang”(Xiao Nengzhu: With the story of Chongqing's time to retain yesterday). *Chongqing Ribao (Chongqing Daily)* 2010.11.12.
20. Yan Da. “Zai Xianshi Zhi Chengli Xunzhao Wennuan—Yu Zhang Yibai Yiqi Jiedu Bian” (In reality the town looking for a warm – together with Zhang Yibai for the interpretation of Lost). *Diangying (Movie)* 12, (2008).
21. Zeng Xianguo. *Heavenly door open*. Chongqing: Chongqing daxue chubanshe, 2010.
22. Zhang Yibai. “Zuo Yi Ge Toupazhe: Haoqi Haisi Mao Chanshu” (Do a candid camera – curiosity killed the cat). *Dangdai Dianying (Contemporary film)* 9, (2008).
23. Zhang Yibai, Wu Guanping, “Gudan Shi Yizhong Doushi de Gaobai: Zhang Yibai Fangtan” (Loneliness is a kind of advertisement of the city: Zhang Yibai interview). *Dianying Yishu(Film art)* 1, (2009).

<참고문헌>

1. 추이즈위안, 김진공 옮김,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 돌베개, 2014.
2. 崔之元, 「重庆经验进行时: 国资增值与藏富于民并进」, 『政治经济学评论』第1卷 第4期, 2010.
3. 董小玉, 「重庆, 一座被胶片定格的城市—论重庆电影与巴渝文化的关系」, 『新闻研究导刊』2期, 2012.
4.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5.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6. 霍建起, 「『生活秀』—艺术总结」, 『电影艺术』 4期, 2002.
7. 蔣光春, 「城市形象包装意识的苏醒」, 『重庆日报』, 2009年6月19日.
8. 江筱湖, 「城市探险小说打造小说新类型」, 『中国图书商报』, 2008年2月26日.
9. 李东然, 「张一白再述城市电影: <秘岸>难解城市青春」, 『三联生活周刊』 43期, 2008
10. 이흥규, 「보시라이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 『현대중국학회』 14, 2012.
11. 李俊, 「张一白专访“我置身他们之中, 我不悲天悯人”」, 『外滩画报』 310期, 2008.
12. 李蕾, 「影片《好奇害死猫》和《秘岸》中的都市意象」, 『电影文学』 8期, 2010.
13. 리시광(李希光), 허재철 옮김, 「『민본 사회주의』 위한 충칭(重庆)의 실험: 지금 충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민족 21』 114호, 2010.
14. 羅渝, 《失踪的上清寺》, <http://www.dzxs.net/book/20026/index.html>. (검색일: 2015.7.2)
15. 심혜련, 「도시 공간 읽기의 방법론으로서의 흔적 읽기」, 『시대와 철학』 제23권 2호, 2012.
16. 심혜련,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19권 3호, 2008.
17. 왕샤오밍(王曉明), 김명희 외 옮김,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왕샤오밍 문화연구》, 서울: 문화과학사, 2014.
18. 徐德明, 『中国现代小说叙事的诗学践行』,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8.
19. 夏婧, 「肖能铸:用故事留住重庆的昨日时光」, 『重庆日报』, 2010年11月12日.
20. 燕达, 「在现实之城里寻找温暖——与张一白一起解读『秘岸』」, 『电影』 12期, 2008.

21. 曾宪国, 『门天朝开』, 重庆大学出版社, 2010.
22. 张一白, 「做一个偷拍者—「好奇害死猫」阐述」, 『当代电影』 9期, 2008.
23. 张一白·吴冠平, 「孤单是一种都市的告白——张一白访谈」, 『电影艺术』 1期, 2009.

<Abstract>

Chongqing has become an urban space typical of new metropolitan city and transitory society which has gone through radical development since it became 'a city under 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Gigantic transition of the form of city based on the change of structures by rapid urbanization does produce fictional text which puts complex reality and conflict of transition in the front. This writing aims to read Chongqing's nature of urban culture from various cultural texts of Chongqing and explor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of Chongqing's urban culture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First, this study attempts "city reading centering on traces" which fight against oblivion of memory of Chongqing coming from gigantic transition of city form. And the study goes on to investigate state of existence and mental condition of humans in the transition period of China from the visual texts which have Chongqing as their background.

Key Words : 도시화(Urbanization), 충칭(Chongqing), 공간(Space), 도시의 흔적(Trace of city), 농민공(Migrant workers)

